

# 화암사 삼세불도 등 道유형문화재 지정

### 불교문화 3건·유교문화 1건...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 지정 예고

전남도는가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례 화암사 각황전 삼세불도' 등 3건과 조선 후기 인물 임서(林)를 기리는 '나주 임서 신도비' 1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구례 화암사 각황전 삼세불도 ▲구례 화암사 대웅전 동종 ▲구례 화암사 구층암 동종 ▲나주 임서 신도비다.

구례 화암사 각황전 삼세불도는 1800년 화승 해운당 익찬과 30명의 화승이 조성한 세로 길이 6m가 넘는 대작 불화다.

대시주자인 임응환과 구례현감 이종무 등이 왕실과 종실의 안녕, 세자의 탄생, 선왕선후의 천도 등을 기원하며 발원해 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 왕실 발원 불교미술과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대작이면서도 안정적 구도와 뛰어난 필력 등 19세기 전라도 지방의 화풍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구례 화암사 대웅전 동종은 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효건이 대표 장인으로 1722년 제작한 유일한 작품이다.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18세기 동종 양식과 사장 계열 주종상의 계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구례 화암사 구층암 동종은 조선 후기 활동한 사장 계열의 대표적 주종상인 김성원이 보조 장인 도움 없이 단독으로 만든 작품이다. 주종기를 통해 제작 연대,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다.

나주 임서 신도비는 조선시대 인물

인 임서를 기리기 위해 김상헌이 글을 지었고 이경재가 글씨를 썼다. 신도비에는 임서의 선대와 가계, 벼슬살이, 이괄의 난 때 활동상, 건립 과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 유교 문화유산으로서 역사·학술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를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으로 총 821점의 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됐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도내 소중한 불교·유교 문화자원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시·군과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국방부는 25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6·25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사업담당장이 유가족들과 함께 전시된 발굴 사진과 유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전남도, 산업 부문 탄소중립 협력 강화

### 유관기관·주력기업 등 협의체 정기회의...추진 사항 공유

전남도와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일 "최근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산업 부문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어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가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7월 도, 유관기관, 도내 주력기업 26개 업체 등 34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협조를 이끌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54주년 세계 지구의 날을 기념한 '기후변화주간'에 맞춰 열린 이날 정기 회의에선 정광영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공정전환과장 의 특강이 진행됐다.

정광영 과장은 2050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기술 확보 등 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전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기업체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전남도·유관기관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 및 전라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을 소개했다. 기업체는 연료 전환, 탄소 포집·저장(CCUS)사업 등 업체별 추진 사항을 공유하며 협의체 간 소통을 강화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업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은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계"라며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도록 많은 동참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 농업박물관, 주말농부장터서 쌀 경품행사

### 내일·내달 4일 2차례 진행...나눔 바자회도

전남도농업박물관은 25일 "관광형 장터인 주말농부장터 불철 셋째 장터인 27일과 넷째 장터인 5월4일 일정 금액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쌀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품 행사에선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쌀 10kg 15포대와 쌀 3kg 20포대를 선물할 계획이다. 모든 구매 고객에 대상으로 투호던지기를 통해 쌀 500g 100개도 제공한다.

어린이를 위한 무료 체험도 확대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장승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요술풍선 만들기' 등을 선보인다.

27일 장터에선 안 쓰는 의류나 생활 용품을 다른 물건과 바꾸거나 할값에 사는 '나눔 바자회'도 운영한다. 안 입는 옷과 안 쓰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1~5천원 수준에 판매하거나 집에서 안 쓰는 물건과 교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양시원기자

## 광주시, 업무자동화 디지털 행정 혁신 속도낸다

### RPA 도입 연간 업무 처리 3천시간 단축

### AI·데이터도 적극 활용 행정 업무 재설계

광주시가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 업무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처리 자동화는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 등록 자동화 ▲상시학습 이수 실적 안내 등 3건이다.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는 매월 부서마다 30분 이상 할애하던 특근매식비 금액 계산을 자동화해 업무시간

절감과 함께 수기 계산에 따른 실수를 차단했다.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화 과제다. 그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교육 이수 실적을 직접 등록했지만 이제는 RPA로 처리토록 해 개별 등록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상시학습 이수 실적 안내'는 1년에 2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통지하던 상시 학습 실적을 자동화해 통해 상

시 학습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개별 통지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했다.

광주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통해 수작업에 따른 실수를 막고 2시간 중단 없는 업무 처리로 연간 약 3천시간 이상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화 도입 효과를 분석해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행정 업무 재설계로 자동화 처리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규 자동화 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자동화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다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입 효과가 증명된 업무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절감된 시간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업무와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 업무 처리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 홍성담 민중미술가 '치유의 인문학' 강연

### 광주트라우마센터, 30일 전일빌딩245서 개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5일 "오는 30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다목적강당에서 홍성담 민중미술가를 초청, '치유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꿈에서 만나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진행되며 인간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꿈에서 트라우마와 어떻게 만나는지, 작가 그림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시민과 함께 나눈다.

홍성담 민중미술가는 뉴욕의 국제 정치외교 전문가 포린 폴리시(Foreign

n Policy)에 '2014년 세계를 뒤흔든 100인의 사상가'에 선정됐으며 현재 생명 평화 미술 행동에 참여해 탈핵 미술 행동, 연안환경미술행동 등의 현장 미술 운동을 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바리', '난장', '운동화 비행기', '오월' 등이 있다.

강좌 참여 희망자는 광주트라우마센터(062-601-1978)에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강기자

알고당시다

#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